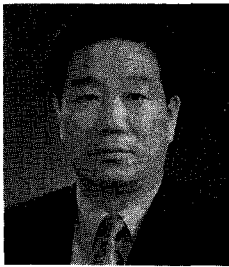


## 병아리 생산조절로 미리 불황 예방해야...

신년설계위원회



이 언 종

본회 종계 · 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신영종계장 대표

**입** 오년(壬午年) 한해가 밝았다. 전국의 종계 · 부화인들은 물론 양계인들에게 지면을 통해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 기회를 빌어 지난 한해의 종계 · 부화업계를 반성해보고 금년 한해, 우리가 가야할 길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2001년도는 울고 웃는 양계농가들이 많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표면적으로 보면 병아리가격이 그 어느 때 보다 높고 장기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부화 · 종계장들이 호황을 누렸을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도 있으나, 속을 파고 들면 속빈 강정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초 많은 양계장들을 맥없이 무너뜨린 두 차례의 큰 폭설, 90년만의 가뭄, 닭고기 수입급증, 질병발생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 시련속으로 양계인들을 몰아갔다. 이 중 30년만에 몰아닥친 폭설 및 혹한피해는 근본적으로 병아리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스트레스와 농장 관리부실에 따른 질병발생, 생산성 저하를 가져와 실용계 농장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서로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현상도 나타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아쉬움과 반성의 해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금년도 우리 종계 · 부화분과위원회의 기본 목표는 종계 · 부화인들의 단합을 꾀하고,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여 종계 · 부화산업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지난해는 하반기 들면서 종계입식이 대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11월까지 2000년도 물량과 비교해 볼때 산란종계는 18.6%, 육용종계는 1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금년도에도 과잉생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므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라 볼 수 있다.

금년 한해는 2002 FIFA 월드컵이 열리는 등 전반적으로 국내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어려웠던 상황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계입식이 늘어났다는 것은 2002년의 종계·부화 경기는 물론 하반기 이후부터 실용계 농장에 결



코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의 적절한 사육수수를 파악하여 불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병아리 생산조절에 협회를 중심점으로 협조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본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의 닭고기 수입은 11월까지 전년에 비해 30.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도는 중국이 이미 WTO에 가입하면서 태국과 미국을 누르고 닭고기 제1의 수출국으로 부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정부에서는 다각도로 한국내 닭고기 시장을 넘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가금인플루엔자 등 해외질병 유입을 국가 차원에서 철저히 막아주어야만 할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도 지난해 말부터 닭고기 신선육이 계열업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일본 수출에 들어갔다. 무척이나 고무적인 일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 상존하고 있는 ND 등 질병에 감염된 닭고기가 일본시장에 유입되어 국내 닭고기의 이미지를 흐릴 경우 그나

마 이루어지던 수출길마저 무너지지 않을까 조심스런 관측을 해 볼 수 있다. 즉, 국가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질병예방은 물론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ND 근절사업을 꾸준히 펼쳐주어야 할 것이며, 생산자들은 방역 철저 등 질병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연계하여 불법 병아리인 일명 백세미 생산을 적극적으로 막는 것도 ND근절사업의 중요한 부분인 만큼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주었으면 한다.

끝으로 지난해 회원들의 협조로 거출된 자조금이 닭고기 및 계란의 우수성 홍보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년에도 우리의 몫은 우리가 찾아야 하는 만큼 자조금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함께 살아가는 길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다시한번 지난해 분과위원회 발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신 종계·부화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년 한해도 성공적인 사업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이 글을 맺을까 한다. 양계